

인도의 직업능력개발과 한국 기업의 기여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인도

오토짓 크쉬트리마움(Otojit Kshetrimayum) (인도 비비기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도입

최근 인도에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초점의 변화는 중국, 서유럽 및 북미와 비교한 인도의 인구학적 동향에서 기인한다. 인도는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59세)의 비중이 62%가 넘고 전체 인구의 54% 이상이 25세 미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는 향후 10년 동안 15~59세 부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증가한 인구 부분을 적절한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통해 동력화할 수 있다면 인도 국내의 포괄적인 성장과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은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인도에서 시급한 정책적 우선 과제가 되었다. 인도에서는 2009년 제1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Skill Development)이 공표되었다. 이 정책에 따라 혁신적 펀딩 모형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2009년에 ‘국립직업능력개발공단(National Skill Development Corporation: NSDC)’이 설립되었다. 2013년에는 ‘국립직업능력개발청(National Skills Development Agency: NSDA)’이 설치되어 각 주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활성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더 큰 차원에서 인도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인도 청소년 체육부(Ministry of Youth Affairs and Sports) 산하에 최초로 ‘직업능력개발 및 창업단’을 설치하였다. 이 부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늘어나게 될 인도의 노동력에 대한 취업능력 부여

를 촉진하는 적절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2014년 11월에 ‘직업능력개발창업부 (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MSDE)’로 승격되었다.

2015년 7월 15일, 인도정부는 2022년까지 인도 내에서 4억 명에게 훈련을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Skill India’를 출범시켰다.¹⁾ ‘Skill India’는 다음과 같은 직업능력개발창업부의 네 가지 획기적 구상안을 포함하고 있다.

- ① 국가 직업능력개발 사명(National Skill Development Mission): 직업능력개발훈련 활동 측면에서 모든 업종과 주가 수렴(convergence)될 수 있도록 구상됨.
- ② 2015 직업능력개발 및 창업 국가 정책(National Policy for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2015): 대규모 직업능력개발에 따르는 과제를 신속(speed)하고, 표준(standard)에 맞춰(즉 질(quality)적인 수준을 갖추어), 지속가능(sustainability)하게 해결하는 데 주 목적이 있음. 국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직업능력개발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기본틀(umbrella framework)을 제공하며, 그러한 활동을 공통기준에 맞추어 직업능력을 수요 센터와 연계하는 데 목표를 둠.
- ③ 총리 직업능력개발제도(Prime Minister Skill Development Scheme; Pradhan Mantri Kaushal Vikas Yojana): 인가된 직업능력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후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직능훈련 인센티브를 부여함.
- ④ 직업능력 대부제도(Skill Loan Scheme): 이 제도에 의해, 향후 5년간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340만 명의 인도 청년에게 5,000루피~1.5라크를 대출해 주기로 함.

인도에서는 약 20개에 이르는 정부부처가 공식/비공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인도의 연간 기술참여 인구는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인도의 성장과 개발에 있어 인구학적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외에도, 인도의 직업능력개발 구상안이 안고 있는 주요 과제는 이 방대한 인구가 취업능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

1) <http://www.skilldevelopment.gov.in/aboutus.html>

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인도 근로자의 93%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공식 통로를 통해 직업능력을 습득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증된 자격이 부족하다. 전체 노동력 중 공식적 직업능력훈련 과정을 거치는 이들의 비중이 영국은 68%, 독일은 75%, 미국은 52%, 일본은 80%, 한국은 96%인 데 비해 인도는 4.69%에 그치고 있고, 이는 인도에서 향후 큰 과제로 남아 있다.²⁾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인도의 직업능력개발에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규모의 국제 공조를 도모하는 것도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 업계의 역할

인도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본 취지는 취업 준비가 된 인적자원을 업계에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능력개발과 산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도 기업들은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 지도, 훈련 및 인센티브 재정 마련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활용 가능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직업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에 민간부문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업계의 역할은 인도정부의 두 가지 정책적 개입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① 국가직업능력개발공단(NSDC) : 인도의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기폭제 역할을 하는 주요 임무를 띤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인도의 직업능력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표준, 커리큘럼 및 품질 보증을 위해 필요한 기본틀을 개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 ② 2013년 인도 회사법(Indian Companies Act, 2013) : 동법 제9장 제135조에 의거하여,

2) *National Policy on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2015*. 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Government of India.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인도에서 의무조항이 되었고, 지주 회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과 동법 2조 (42)항의 정의에 따른 외국 기업은 이 조항의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은 기업의 CSR 정책 활동에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인도의 신정부하에서 대외적 관계가 개선되면서, 인도는 직업능력개발 분야에 있어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선두 주자인 한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정부의 수출지향적인 제조업 촉진이 한국 경제의 기적을 가능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의 주요 요인이다. 전체 노동력 중에서 공식적인 직업능력훈련을 거친 사람들의 비중이 한국은 96%에 육박하는 반면에, 인도는 4.69%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괄목할 만한 산업적 기적은 잘 훈련되고 헌신적인 인력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제도는 산업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3.4%가 연구 및 혁신에 사용되며 이 금액의 70%가 업계로부터 나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배경으로, 이하에서는 최근에 한국 기업들과 인도의 중소기업부(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및 산업훈련원(Industrial Training Institutes: ITIs)이 인도 전역에 기술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트너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인도와 한국의 협력 범위

한국은 인도의 10대 투자 유입국 중 하나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의하면, 2014년 12월 까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한 금액은 35억 달러가 넘는다. 641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매우 다양한 업종들에 상당한 규모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해오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제조업 부문이 86%로 주로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밖에 도소매 6%, 건설 1.2%, 금융보험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3대 한국

기업은 LG전자, 삼성, 현대이다.³⁾ LG전자는 1997년에 인도에 자체 제조 시설을 설립하였고, 삼성은 1995~1996년에 인도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렌지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소비자 가전제품 시장에서 LG와 삼성은 합계 시장점유율이 약 40%에 이른다. 이코노믹 타임즈(Economic Times)의 보고에 의하면, 삼성과 LG를 합쳐 에어컨에서는 35%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부문에서는 합계 시장점유율이 각각 45%에 이른다.⁴⁾

또 다른 한국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1996년에 인도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인도 시장 점유율이 약 19%를 기록하면서 38%를 차지하는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업체다. 현대자동차는 100%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인도 유한회사(HMIL)를 설립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인도에 자동차 부문의 자체 제조업체를 설립한 최초의 다국적기업이기도 하다.⁵⁾

이러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크게 기여한 바를 고려하고 그 잠재력을 인정하여, 인도 정부 및 주정부들은 이 기업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이하에서는 일부 프로그램들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3) Kshetrimayum, Otojit. 2015. 'Mapping Social Contributions of Foreign Companies: A Case Stud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s of Korean Companies in India' in Sushila Narsimhan and Kim Do-Young (ed.). *Deepening India-Korea Relations: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New Delhi: Manak Publications.

4) Rajiv Banerjee & Ravi Balakrishnan. 2012. "Domestic consumer durables attempting to beat LG & Samsung at their own game" in *The Economic Times*, 15 February.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2-02-15/news/31063176_1_consumer-durable-maker-lg-samsung-korean-brands>

5) Anshu Shrivastava. 2012. *Growing Korean Companies in India and Indian Companies in South Korea*. <<http://www.biztechreport.com/story/2031-growing-korean-companies-india-and-indian-companies-south-korea>>

■ 삼성 기술학교(Samsung Technical Schools)

삼성 기술학교는 삼성이 직접적인 경험을 갖춘 인재 풀을 조성하고자 인도 전역에서 펼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다. 삼성 기술학교는 중소기업부 및 라자스탄(Rajasthan), 케랄라(Kerala), 비하르(Bihar), 델리(Delhi), 서벵갈(West Bengal) 주의 기술교육부(Department of Technical Education)와의 공조를 통해 설립되었다. 2015년 5월 기준, 18개의 기술학교가 인도 전역의 산업훈련원(ITI)과 중소기업(MSME) 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삼성 기술학교는 삼성의 ‘고급수리 및 산업 숙련향상(Advanced Repair and Industrial Skills Enhancement, A.R.I.S.E. 2)’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휴대폰, TV, 홈시어터, 기타 가전제품 및 관련 부속품과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의 수리 및 문제 해결의 다양한 내용들을 직종별로 분류하여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훈련생들은 삼성이 인증한 서비스센터에서 실시간 업무경험을 갖는다. 학생들은 이러한 훈련 과정의 일부로서, 기술적인 직업능력 외에도, 모범적으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 스킬(soft skill)’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⁶⁾

인도정부는 ‘Make in India’ 구상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삼성과 인도 중소기업부(MSME)의 공동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MSME-삼성 기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고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 동기도 부여할 수 있는 모형이다. 훈련생들에게 휴대폰, TV, 홈시어터 및 기타 가전제품과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의 수리 및 문제 해결에 있어 직종별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훈련생들은 모범적으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 스킬도 교육을 받는다. 삼성은 인도 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양의 부품과 부속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게 함으로써 ‘Make in India’ 개념을 확산시키고 있다.

MSME-삼성 기술학교는 인도 전역에서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즉 루디아나(Ludhiana)의 중앙 도구실(Central Tool Room), 콜카타(Kolkata)의 중앙 도구실 및 훈련원(Central

6) <http://www.samsung.com/in/aboutsamsung/samsungelectronics/india/corporate-citizenship/employability.html>

Tool Room & Training Center), 뭄바이(Mumbai)의 전기측정기기 설계연구소(Institute for Design of Electrical Measuring Instruments), 부바네스와르(Bhubaneswar)의 중앙 도구실 및 훈련원, 아우랑가바드(Aurangabad)의 인도-독일 도구실(Indo German Tool Room), 하이데라바드(Hyderabad)의 중앙 도구 설계 연구소, (텔리) 람나가르(Ramnagar)의 전자서비스 & 훈련원(Electronics Service & Training Center), (바라나시) 잠셰드푸르(Jamshedpur)의 인도-덴마크 도구실(Indo Danish Tool Room), (첸나이) 하이데라바드(Hyderabad)의 중앙 도구 설계 연구소에 설립되어 있다. 최초의 MSME-삼성 기술학교는 2014년 8월 4일 델리 코넛 플레이스(Connaught Place)의 MSME 센터(MSME Extension Center)에서 개원하였다.⁷⁾

삼성전자 인도법인(Samsung India Electronics)은 여러 주의 기술교육부(Department of Technical Education: DTE)와, ‘고급수리 및 산업 숙련향상(A.R.I.S.E)’ 프로그램과 삼성 기술실험실(Samsung Technical Lab)’을 인도 전역의 산업훈련원(ITI)에 도입, 운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최초의 ‘삼성 기술실험실’은 2013년 9월 1일에 델리 디푸르(Dheerpur)의 ‘Sir C.V. Raman 산업훈련원’에 설치되었다.⁸⁾

- ① 삼성전자 인도법인과 서벵갈 주정부는 서벵갈 주의 여러 산업훈련원(ITI)에 4개의 삼성 기술학교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4개 기술학교 중 최초의 학교는 2014년 8월 14일에 가리아하트(Gariahat)에 위치한 콜카타 여성 산업훈련원에 설립되었다.
- ② 2015년 1월 31일,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비하르(Bihar) 주정부의 노동부(Labor Resource Department) 산하 고용훈련총국(Directorate General of Employment and Training)과, 파트나(Patna)의 디가 여성 산업훈련원에 삼성 기술학교를 설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7) http://www.business-standard.com/content/b2b-manufacturing-industry/samsung-to-collaborate-with-msme-ministry-to-set-up-technical-schools-114080501298_1.html

8) 산업훈련원(ITI)은, 인도의 기술 및 산업 성장에 필요한 직업능력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에 직업능력을 부여할 목적으로 인도 중앙정부의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총국(DGE&T)이 1950년에 장인양성제도(CTS)하에 설립한 것이다.

- ③ 삼성전자 인도법인과 라자스탄 주정부의 기술교육(훈련)청은 자이푸르, 바니 파크의 공공 산업훈련원(ITI)에 삼성 기술학교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2015년 3월 17일에 체결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 ④ 2015년 5월 19일,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청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구상안의 일환으로 케랄라(Kerala), 코치의 카라마세리 산업훈련원에 18번째 삼성 기술학교가 설립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삼성전자 인도법인과 인도 중앙정부의 중소기업부는, 청년들에게 티젠 운영체제(Tizen OS) 플랫폼에 기반하여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제공하는 MSME-삼성 디지털 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위한 협약을 2015년 5월 13일에 체결하였다.⁹⁾

1단계로, 삼성 디지털 아카데미는 2014년 8월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삼성과 중소기업부에 의해 설립된 10개의 MSME-삼성 기술학교 전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각 기술학교는 30명의 학생들을 1반으로 구성하여 4주간의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인도 전역의 68개 다른 MSME 기술센터와, 인도 기술연구소(Indian Institutes of Technology: IITs), 인도 정보기술연구소(Indian Institutes of Information Technology: IIITs), 국립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Technology: NITs) 및 기타 인도 내 주요 기술 교육 및 공학 연구소들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다.

9) 티젠은 스마트폰, 태블릿, TV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장치에 대응용 역량을 제공하는 개방적으로 적용 가능한 플랫폼이다. 삼성의 최초 티젠 기반 스마트폰인 삼성 Z1은 2015년 초반에 인도에서 출시되었다. 이론과 실습 훈련이 효과적으로 구성된 초기의 삼성 디지털 아카데미 과정에는 설계된 앱을 다양한 장치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티젠 플랫폼 소개, 티젠 앱 개발 공정, 테스트 및 오류 제거(debugging), 장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커리큘럼은 델리와 벵가루루의 삼성 연구소에서 개발한다. 또한 삼성은 테스트 목적으로 삼성 Z1 휴대폰과 함께 티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도 제공한다.

■ LG전자

LG전자는 인도의 산업훈련원(ITI)과 제휴를 맺고 있다. 학생들의 행동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명한 강사들이 소프트 스킬 향상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최신 훈련장비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훈련센터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주어지며, 성적 우수자는 모두 기술 컨설턴트나 감독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LG전자는 이미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아삼(Assam), 델리(Delhi),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카르나타카(Karnataka), 펀자브(Punjab), 첸나이(Chennai), 타밀나두(Tamil Nadu),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과 같은 여러 주의 산업훈련원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적절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훈련원의 모든 훈련 강사들에게 LG 제품에 대한 방대한 훈련이 실시되었다. LG는 2016년 4월에 ‘Make in India’ 구상안의 일환으로 인도에서 생산된 최초의 스마트폰인 K7 LTE와 K10 LTE를 출시하였다.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업의 사회적 팔과 같은 ‘현대자동차 인도재단(Hyundai Motor India Foundation)’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yundai Motor India: HMI)은 직업능력개발 활동의 대상이 될 첫 번째 교육기관으로 구와하티(Guwahati)의 산업훈련원을 선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HMI는 이 산업훈련원의 훈련설비를 개조, 보강하였다. 교실, 작업장, 훈련장소에 대한 설비 개조가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더욱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최신 자동차 기술에 대한 특별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보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아삼 산업훈련원의 모든 자동차 정비차량(MMV) 훈련 강사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또한 HMI는 현실적인 훈련을 위해 훈련원에 게츠(Getz)라는 차량을 제공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직업능력과 지식을 높이기 위해 엔진, 변속기 및 기타 조립부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의 학습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HMI는 구와하티 산업훈련원 시설 개조를 지원하였고 설비를 보강하였다.

현대자동차 인도 유한회사(Hyundai Motor India Limited: HMIL)는 타밀나두, 울룬덜펫(Ulundurpet)의 정부 산하 산업훈련원을 택하여 2013년 7월 10일에 자동차 서비스 훈련소를 개설하였다. 이는 인도의 기술훈련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이 산업훈련원의 훈련생 약 400명이 메이저 자동차업체인 현대로부터 자동차 정비훈련을 받았다. HMIL은 자동차 구조에 관한 심화훈련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훈련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훈련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제공하였고 기업에서 시범 사용된 모든 차량들을 학생들의 실습과정에 제공하였다. HMIL은 업계의 요구사항에 관한 요지를 전체적으로 재작성하는 한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이룬가투코타이(Irungattukottai)에 위치한 기업 공장에서 15일간 훈련을 실시하였다.

■ 평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인도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청년층의 직업능력개발이다. 인도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 청년층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취업능력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시설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이와 같이 훈련기회가 증가, 확대되면 훈련을 받은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직훈과 산업이 연계되어야 한다. 업계의 지원과 지도를 통해, 훈련기관들은 아이디어의 교차배양(cross fertilization)과 지식공유를 위해 업계와 구조적인 연계를 정립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세 기업인 삼성, LG 및 현대가 기여한 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 기업 중 특히 삼성전자는 직업능력개발에 폭넓게 참여하면서 관한 활동을 확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에서는 정부 및 민간을 포함하여 거의 12,000개에 이르는 산업훈련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 기업의 공조활동은 인도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2013년 제정된 인도회사법에 의거하여, 인도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지난 3년간 평균 순수

10) Kshetrimayum, Otojit. 2016. *Skilling India: Evaluation of Multi Skills Development Centres*. Noida: V.V. Giri National Labour Institute.

익의 2% 이상을 매 회계연도에 CSR 활동에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 기업은 CSR 활동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직업능력개발에 할당해야 한다. 그들은 인도 전역에 판매대리점과 서비스센터를 두고 있지만, CSR 활동은 대부분 주로 기업의 제조시설이 있거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SR 활동의 혜택이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활동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적절한 기록자료와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는 기업 웹사이트를 비롯한 공개된 장(場)에 발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은 특히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한 내용들이 잘 알려지게 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직업능력개발창업부(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산하의 훈련총국이 ‘탄력적 양해각서(Flexi MOU)’를 체결함으로써 업계의 수요에 따라 취업 잠재력이 높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의 활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산업의 특정 수요 충족을 위하여 취업 잠재력이 높은 훈련 과정에 대한 정책 지침(Policy Guidelines for High Employment Potential Courses for Specific Needs of the Industries)”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산업훈련원에서 실시되는 과정인) 장인 양성제도(Craftsmen Training Scheme)와 청년들의 훈련 및 고용을 위해 업계에서 사용하는 모듈식 취업능력 과정(Modular Employable Skills Courses)에 기반을 둔 숙련개발 구상안(Skill Development Initiative)의 추진에 있어 새로운 창을 내주었다. 현재까지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 기업은 없다. 삼성, LG, 현대는 산업훈련원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 그들의 역량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인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위해 자체의 ‘기업협력 프로그램(Business Partnership Program: BPP)’을 통한 역할수행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PP는 협력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재정자원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협력 국가의 개발 수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으로서 적합하다.

■ 향후 과제

직업능력개발은 한편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통합적이며 공평한 고용을 창출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계 기업 및 단체를 망라하여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에는 기업 경영의 편의성을 촉진하는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능력을 배양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주요 방안들로 다음의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인도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독자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 패널(fast-track panel)’을 구성하였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인도에 그러한 활성화 단위(facilitation cell)를 지니게 된 국가가 되었다. 둘째, 인도의 라자스탄 산업개발투자공단(Rajasthan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 RIICO)과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13년 3월에 라자스탄 알와르(Alwar) 지역의 님라나(Neemrana)에 배타적인 한국 산업지구를 배타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산업지구는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한국과 인도 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셋째, 인도산업총연맹(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과 국제직업능력올림픽 한국위원회(WorldSkills Korea)는 국제직업능력올림픽대회를 통해 국제적인 직업능력 교류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용접과 산업 제어에 대한 이러닝 모듈(e-learning module) 개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양해각서는 ①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련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며, ② 국내 및 국제 직업능력 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직업능력훈련을 지원하고, ③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특정 직업능력에 있어 쌍방향 IT 기술을 갖춘 이러닝 모듈을 개발, 실용화하며, ④ 인도에서 훈련 강사들과 관리자들이 직업능력 표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직업능력올림픽 한국위원회는 서울국제훈련센터(Seoul Institute of Vocational Training on Advance Technology: SIVAT)에서 인도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인도정부가 2022년까지 4억 명의 숙련 인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직업훈

런 분야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인도는 경제성장, 취업능력 및 고용증대를 목표로 'Make in India'와 'Skill India'를 지향하며 여러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인도정부와 한국 기업들 간에 진행된 협력사업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규모 사업이다. 이러한 협력은 인도 전역의 다른 직업훈련기관들에게도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혁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Banerjee, Rajiv & Ravi Balakrishnan(2012), “Domestic consumer durables attempting to beat LG & Samsung at their own game,” in *The Economic Times* 15 February,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2-02-15/news/31063176_1_consumer-durable-maker-lg-samsung-korean-brands (Retrieved on 12 November, 2015)
- Kshetrimayum, Otojit(2015), “Mapping Social Contributions of Foreign Companies: A Case Stud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s of Korean Companies in India” in Sushila Narsimhan and Kim Do-Young (ed.), *Deepening India-Korea Relations: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New Delhi: Manak Publications.
- _____(2016), *Skilling India: Evaluation of Multi Skills Development Centres*. Noida: V.V. Giri National Labour Institute.
- *N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2009*, New Delhi: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Government of India.
- *National Policy on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2015*, New Delhi: 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Government of India.
- Shrivastava, Anshu(2012), *Growing Korean Companies in India and Indian Companies*

in South Korea, <http://www.biztechreport.com/story/2031-growing-korean-companies-india-and-indian-companies-south-korea> (Retrieved on 5 December, 2015)

- Umashankar, Seethapura Ramaiah(2011), *Skill Development Policy of South Korea: Some Lessons for India*, <http://www.performance.gov.in/sites/default/files/policy-paper/74.%20Skill%20Development%20Policyof%20South%20Korea.pdf> (Retrieved on 3 November, 2015)
- <http://www.skilldevelopment.gov.in/aboutus.html> (Retrieved on 17 December, 2015)
- http://www.business-standard.com/content/b2b-manufacturing-industry/samsung-to-collaborate-with-msme-ministry-to-set-up-technical-schools-114080501298_1.html (Retrieved on 9 January, 2016)
- <http://www.samsung.com/in/aboutsamsung/samsungelectronics/india/corporate-citizenship/employability.html> (Retrieved on 14 January, 2016)